

# 10-13세기 중국 및 고려의 金釳瓷器 제작과 전개 양상

윤도영\*

|                                |
|--------------------------------|
| I. 머리말                         |
| II. 10-13세기 중국의 금구자기 제작 배경과 유행 |
| III. 금구자기의 고려 유입과 제작 경향        |
| IV. 맺음말                        |

## I. 머리말

金釳는 기물의 구연부와 저부를 포함한 가장자리나 동체 외면을 금속으로 보강 또는 장식한 것을 지칭하는 기법이다. 금구에 대해 後漢 許慎의 『設文解字』에서 “釳, 金飾器口”라고 하였고 北宋代 李昉이 편찬한 백과사서인 『太平御覽』에서는 釳에 대해 金을 사용하여 기물을 장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sup>1</sup> 금구에서 金은 五金(金, 銀, 銅, 鐵, 錫) 중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진 금속을 상징하는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구로 장식한 기물들은 고급 기물의 성격을 가졌으

\* 국립중앙박물관

\*\* 본 논문은 윤도영, 「10-13세기 중국과 고려의 金釳瓷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5)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sup>1</sup> 『太平御覽』卷229, “又曰太官上食釳音口金飾器, 器中官私上食用白銀釳器如神廟器云”



도1 <漆平脫銀釦秘色瓷碗>, 唐, 높이 8.2, 구경 23.7cm, 陝西省扶風法門寺地宮出土(法門寺博物館·韓生, 『法門寺文物圖飾』, p. 287)



도2 <花瓣形銀釦邊漆碗>, 宋, 높이 2.5, 구경 12cm (북촌미술관, 『東亞洲漆藝-中·韓·日漆器』, 도 8)

며, 문헌기록에서도 조공의 대상품으로 수차례 확인된다.<sup>2</sup>

금구기법으로 제작된 기물은 중국 전국시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sup>3</sup> 漢代에는 칠기의 가장 자리를 금속으로 덧입혀 장식한 기물을 이르는 ‘釦器’라는 명칭이 『後漢書』<sup>4</sup>, 『演繁露』, 『太平御覽』 등 문헌에서 확인된다. 구기의 용례는 문헌기록을 통해 여러 사례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鹽鐵論』에서는 고급 기물인 한대 칠기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용도로의 차등 사용에 대해 기술하였고,<sup>5</sup> 南宋代 『演繁露』에 의하면 제사용 기물로 순금구기를 사용하며 蜀都에서 百伎千工

2 『十國春秋』, 『宋會要輯稿』, 『宋史』, 『吳越備史』 등 외교 관계에서 오간 조공 품목에 대한 관련 기록에는 吳越王이 北宋 開寶 2년(969)에서 太平興國 8년(983)에 이르기까지 20년간 宋에 조공을 보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瓷器가 있다. 이 중 구연부에 金銀으로 장식된 자기가 많았다. 기록에는 ‘金稜秘色瓷器’, ‘釦金瓷器’, ‘金銀瓷器’, ‘金釦越器’, ‘金釦瓷器’, ‘金銀陶器’ 등의 자기가 등장하는데, ‘金稜’, ‘銀稜’, ‘金釦’와 같은 용어와 함께 불리어지며 모두 금으로 장식한 자기이다. 이와 같이 문헌에는 다양한 금구장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구의 다른 표현으로 ‘金稜’이라고도 불리운다. 실제로 유물 중에는 보편적으로 구연부가 완만한 형태가 있고 드물게는 곡선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陝西 夫風 法門寺 地宮 출토 <漆平脫銀釦秘色瓷碗>이 있으며, 宋代 문헌인 句延慶의 『錦里耆舊傳』 중 “金鍍銀稜瓷器四百事, 銀漆稜器千六百”에서는 ‘金鍍銀稜瓷器’, ‘銀漆稜器’라 하여 자기 뿐 아니라 칠기에서도 구연부에 굴곡 있는 장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도 1, 2). 본고에서는 금속을 총칭하는 金과, 문헌 기록 및 釦器의 예에서 살펴본 바처럼 기물이 장식되는 범위를 지칭하는 釦를 합쳐 ‘金釦’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중국의 馬東, 『戰國秦漢釦器的考古學初步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2013), pp. 2-3에서 금구의 시작을 西周 시대의 張家坡 墓 출토품과 山西 洪洞 永疑堡 墓 출토품 중 한 점의 銅釦漆器로 보고 있다.

4 『後漢書』本紀 皇后紀 和熹鄧皇后. “肅(蜀)과 광한군(漢)에서 釦器와 아홉 번 두른 佩刀를 바쳤는데, 모두 다시는 징발하지 못하게 하였다(和熹鄧后詔蜀漢釦器凡(九)帶佩刀並不復調釦音口以金銀綠器也).” 범엽 저, 장은수 역, 『後漢書本紀』(새물결 출판사, 2014), p. 642.

5 桓寬, 『鹽鐵論』卷7 “오직 瑚璉, 觴, 豆를 彤漆로 꾸미고… 부유한 자는 銀口黃耳를 사용하고… 釦器金錯蜀杯… 하나의 杯는 銅杯의 10배 가격에 통한다.(胡鮮中者染緯紹系采畫音壞暴乾古者汗尊坏飲蓋無爵觴樽俎及其後庶人器用即行柳陶瓠而已唯瑚璉觴豆而後彫文彤漆今富者銀口黃耳金畫玉鍾中者舒玉紵器金錯蜀杯夫音扶一文杯得銅杯十賈通作價…)”

의 공력이 든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sup> 뿐만 아니라,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의 고분에서 출토된 기년명 명문 칠기에서 제작처인 공관과 제작자인 공인에 대한 명문이 전해져, 금구기법에 의한 칠기의 제작에 대해 단편적으로 확인돼 중국의 기술과 제작기법이 낙랑을 통해 국내에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자기의 구연부를 금구기법으로 장식한 기물은 중국 唐代 陝西 夫風 法門寺 地窟에서 출토된 완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후에도 금구장식이 있는 도자기가 나타나 唐·宋代 출토지의 성격이 분명하고 遼와 金에서 역시 비슷한 유형이 보이는데, 당시 상당부분 형성된 금구자기에 대한 인식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시대에는 10세기 후반에 건립된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의 ‘金釵瓷鉢’<sup>8</sup>을 통해 금구의 단서와 함께 장식기법 및 하사품으로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에서도 구연부에 금속으로 장식된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적은 수량이지만 유물 및 출토지의 특징은 비교적 명확하다. 또한 후대의 조선 전기 기록에서 ‘金銀裝邊’<sup>9</sup>, ‘磁器釵金’<sup>10</sup>, ‘金釵大杯’<sup>11</sup>, ‘鍾亦釵以白



도 3-1 〈紀年銘漆耳杯〉, 漢, 길이 23.5cm, 낙랑 석암리 194호분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낙랑』, p. 102)

도 3-2 〈紀年銘漆耳杯〉 세부

6 程大昌, 『演繁露』, 卷11 “金釵器, 續漢書桓帝祠老子用純金釵器揚雄蜀都賦曰雕鏤釵器百伎千工”

7 기원전 85년부터 기원후 102년 사이에 제작된 기년명 명문 칠기 67점에서 명문이 전해지는데 기년명 칠기의 器面에는 年號, 工官名, 器名, 容量, 工人名, 官人名의 순으로 칠기의 제작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공관제도에 대해서는 중앙공관인 少府(共工), 考工, 右工, 供工과 지방공관인 蜀郡西工, 廣漢郡工이 명기되어 있다(도 3). 기년명 칠기 명문에 시문된 제작 공인 중 塗工은 銅釵黃塗工, 銅耳黃塗工, 銅耳工, 黃鉛工, 銅辟黃塗工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 중 ‘銅釵黃塗工’은 칠기에 銅釵를 장착하고, 동시에 塗黃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으로 주목된다. ‘銅釵黃塗工’들은 한대 칠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塗金銅釵漆器를 제작했다. 도금동구칠기는 한대 구기에서 銅釵 위에 칠을 하고, 그 위에 黃金을 칠하여 금구가 녹스는 것을 방지하게 했다.

8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 “스님의 위대한 업적은 다할 때가 없을 것이라 염원하여 곧 곤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는 스님을 받들어 국사로 모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향화의 인연을 맺으며, 돈독한 정성으로 사자의 예를 행하고는 마납가사, 마납장삼과 좌구·은병·은항로·금구자발·수정염주 등을 선물로 헌납하였다(師之美道無窮即以服冕奉爲國師處處結香火之緣慥慥結師資之禮仍獻踏衲袈裟磨衲襪并座銀瓶銀香爐金釵瓷鉢水精念珠...)” 한 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참조.

9 『世宗實錄』卷53, 世宗 13年(1431) 7月 22日(甲申) “전에 하사한 자기를 쓰면 곧 깨어져서 금과 은으로 邊을 장식하였는데 벗기고 쓸 것인가, 말 것인가(且前賜磁器, 用輒虧破, 曾以金銀飾邊, 今當宴時, 脫其飾而用之乎? 因而用之乎? 若以金銀器不可示於使臣, 則本國臣僚金銀之帶, 使臣所目擊, 處之如何?)”

金<sup>12</sup> 등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금구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금구자기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사용된 정황과 뚜렷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 기록과 전제되는 유물 및 출토 유물의 수량이 적어 주목받지 못했다. 다만 청자의 발생과 관련한 일부 논문에서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sup>13</sup> 그러나 중국과 고려에서 특정 시기에 금속과 도자기라는 상이한 재질간의 결합에 의한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에서 시작된 금구자기가 고려에서는 어떻게 수용되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재 확인된 중국과 고려의 유물 현황과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금구자기의 제작 배경과 전개 과정을 분석해, 10-13세기 당시 금구자기가 지녔던 문화적 가치와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10-13세기 중국의 금구자기 제작 배경과 유형

### 1. 금구자기의 제작배경

唐·五代에는 漢代 釳器의 제작 방식과 유사하게 도자기의 구연부를 금속으로 장식하였다. 도자기의 구연부를 금속으로 장식한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 우선 한대 칠기에서 보듯 奩, 盒 등과 같은 기물의 가장자리가 마모되는 결합 보완 및 내구성을 견

<sup>10</sup> 『世宗實錄』卷62, 世宗 15年(1433) 12月 26日(乙亥) “진상하는 磁器와 금테 두른 그릇(釳)을 흠친 仁順府의 종 小老의 죄를 의금부에서 내부의 재물을 절도한 조문에 비춰서 참형에 해당한다고 하나…(盜進上磁器釳金仁順府奴小老之罪, 義禁, 府照以盜內府財物當斬…)”

<sup>11</sup> 『睿宗實錄』卷3, 1年(1469) 2月 27日(壬子) “宮醞과 金釳大杯를 승정원에 하사하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술을 마시고 罷하면, 이 잔을 本院에 간직하여 두어라(賜宮醞及金釳大杯于承政院, 仍傳曰: 飲罷, 以此杯藏諸本院.)”

<sup>12</sup> 『東文選』卷82, 記, 成均館受賜鍾樽記, “정묘년 가을 8월에, 겸 대사성 이조 판서 정인지가 조용히 사연을 갖추어 아뢰니, 임금은 곧 白尊 두 쌍과 白鍾·畫鍾 각각 한 쌍을 내려 주었는데, 백자의 푸른 상감은 선명하고 빛나며 갑가지 딸렸고, 종도 역시 백금으로 종의 구연부를 꾸미어 정세하고 치밀하였다(丁卯秋八月, 兼大司成吏曹判書鄭麟趾, 從容具辭以啓, 上即賜白尊二雙, 白鍾, 畫鍾各一雙, 白磁青華, 鮮明炳煥, 匣皆具, 鍾亦釳以白金, 精緻縻密.)”

<sup>13</sup> 최진, 「韓國 靑磁 發生에 관한 背景의 古察」, 『고문화』 31(1987); 윤용이, 「高麗陶磁의 變遷」, 『간송문화』 31 陶藝 IV 靑磁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6); 同著,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994); 이희관, 「莞島郡 將島遺蹟 出토 越窯靑瓷의 제작시기 문제: 고려청자 출현 시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접근」, 『해양문화재』 5(2012). 특히 이희관은 고려의 금구자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월요청자 중에 구연을 금어낸 것이 있다고 하였다.

고하게 하는 목적으로 금구기법이 활용되었다. 나아가 기물의 장식에도 사용되면서 금구가 지닌 이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여 구기의 조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무제 시기에 군, 현을 설립한 이후 관영수공업에서는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금구기법을 적용한 대량의 고급칠기를 제작하였고 광범하게 사용되었다.<sup>14</sup> 이렇듯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금구기법을 활용하면서 한대 사회에서 일상용기로서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 이후 조형적 영향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는 어색함이 없었을 것이다. 칠기 이외에 다른 기물에서도 가장자리가 금속으로 장식된 예가 있어 금구기법은 도자기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sup>15</sup>

한편, 금구자기가 제작된 요인은 금은식기가 가진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기복적 의미에 따른 금은기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관념의 추구는 한대부터 黃金飲食器의 사용 및 애호로 이어졌고, 唐代에도 그 유행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금은기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각종 논의에도 불구하고,<sup>16</sup> 상류층 사이에서 향유의 대상 및 하사품 등 빈번하게 활용되어 직접적인 금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황금음식기는 성행했다.

南宋代 孟元老의 『東京夢華錄』과 周密의 『武林舊事』에서는 금은기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연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봉부 사람들은 생활이 사치스럽고, 도량이 좀 큰 편이어서 술집에서는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두 사람만 앉아 술을 마셔도 반드시 注碗 한 벌, 盤盞 두 벌, 과일과 채소를 담은 접시 각각 다섯 접시, 신선한 야채 요리 네다섯 접시 등을 시켜 먹었기에 거의 백 량(兩) 가까이 돈이 들었다. 비록 혼자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사발은 또 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sup>17</sup>

<sup>14</sup> 이종현, 『中國漆藝簡史』, 『중국 칠기의 美』(북촌미술관, 2008), p. 112.

<sup>15</sup> 魏晉代 〈金釳蚌殼羽觴〉는 구연부 및 양쪽 가장자리를 금속으로 장식하였고, 隋代 李精訓 墓 출토 1점의 玉杯도 구연부를 금으로 장식한 예가 있다.

<sup>16</sup> 『太平御覽』, 珍寶部, 銀條. “武德中, 方術人師市奴合金銀并成, 上(李淵)異之, 以示侍臣, 封德彝進曰: 漢代方士及劉安等皆學術, 惟恐黃白不成, 金銀爲食器可得不死.”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p. 261에서 재인용.

<sup>17</sup> 孟元老, 『東京夢華錄』卷4, 「會仙酒樓」條. “如州東仁和店, 新門裏會仙樓正店, 常有百十分廳館動使, 各各足備, 不尙少闕一件, 大抵都人風俗奢侈, 度量稍寬, 凡酒店中, 不問何人, 止兩人對坐飲酒, 亦須用注碗一副, 盤盞兩副, 菓菜棧各五片, 水菜碗三五隻, 卽銀近百兩矣. 雖一人獨飲, 盃遂亦用銀盃之類. 其菓子菜蔬, 無非精潔, 若別要下酒, 卽使人外買軟羊, 龜背, 大小骨, 諸色包子, 玉板鮓, 生削巴子, 瓜薑之類.”

모두 金銀으로 갖추어져 있다. 받들어 행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데, 시전에서 여럿이 그러하다.<sup>18</sup>

위의 두 기록을 통해 당대에 규제가 논의된 이후에도 금은기의 사용은 지속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宋代에도 이어졌다.<sup>19</sup> 특히 송대에는 계속되는 금은기 제작과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금속 원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北宋은 국가가 금은 자원을 철저히 통제하던 唐, 遼와 달리, 금은 광업이 민영화되어 생산량의 약 20%만 國稅로 부과했다. 또한 요와 전연의 맹(1004)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은과 비단을 바쳐야 했기에 금속 원료가 부족했고, 이 때문인지 실제로 송대 묘장에서는 금속 제품이 이전에 비해 소량 출토된다. 따라서 오대에서 북송까지의 출토된 금은기의 수량은 많지 않다.<sup>20</sup> 이렇듯 송대는 금속원료의 부족에 따라 금은기의 대체를 시도했다. 이 시기에는 금은기를 모방한 자기 제작 사례가 많은데 북방의 요주요나 정요의 경우 대체로 북송시기에 접어들어 금은기의 조형을 모방한 기벽이 얇고 굵이 작은 기종의 제작이 늘어난다.<sup>21</sup> 이와 같이 금은기를 모방하는 경우는 당대 말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송대에 비교적 많았다.<sup>22</sup>

금은기를 모방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형 자체를 모방하는 방식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당 후기 水邱氏墓 등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있다. 수구씨묘 출토의 金銀釵陶甗가 그것인데, 우선 금은기의 부장을 대체할 수 있는 조형적 유사성이 파악된다. 출토된 금구자기는 당시 다수의 金銀器皿과 매우 유사한데,<sup>23</sup> 가장자리를 금속으로 장식하였다. 또 수구씨묘 출토품은 월요청자, 백자, 금은기 등으로 그 중 백자가 주목할 만하다. 수구씨묘의 주인은 오월왕 전숙의 모친으로 생전에 사용한 음식기인 碗, 盤, 杯, 盞托, 水注 등이 백자로, 또 爐, 酒罌, 油燈, 粉盒, 油盒, 碗, 小罐, 罈은 청자로 매납되었다. 청자와 백자의 쓰임은 명확히 다른데, 백자 17점의 대부분은 구연부 및 저부를 포함한 일부분에 金銀으로 장식을 더하였고 특히 주자와 잔탁의 경우 뚜껑, 잔대까지 범위를 넓혀 장식하여 장식 효과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금은기로 제작된 음식기의 사용을 추구하던 현상과 관계되는데 금구장식을 통해 금은기를 부장한 것

<sup>18</sup> 周密, 『武林舊事』「哥館」條。“悉以金銀爲之, 有司奉行不度, 市肆公然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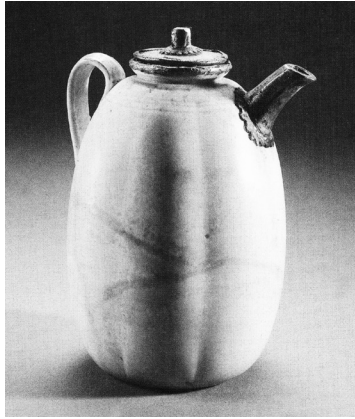
<sup>19</sup> 송대에는 황실뿐 아니라 문인사대부들도 금은기는 집안의 필수적인 기물로 인식하였다. 연회 때 손님 접대용 기물로 금은기를 쓰는 것이 기본격식인 것이다. 몹시 빈한한 洪湛이라는 사대부가 남의 은기를 빌려서 손님을 초대한다는 내용에서 금은기를 사용하여야 체면이 섰던 송대 사회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송란, 「송대 금은기의 사용양상과 사회적 의미: 四川彭州 窖藏 金銀器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1(2016), p. 13.

<sup>20</sup> 임지윤, 「高麗時代 魚子文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7), p. 51.

<sup>21</sup> 이희관, 「越窯의 消滅에 관한 몇 가지 問題」, 『미술사학연구』 279·280(2013), p. 360.

<sup>22</sup> 齊東方, 「원대 금은기(金銀器)와 기타 유물 장식」,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p. 253.

<sup>23</sup> 謝明良, 『陶甗手記』(上海: 石頭出版, 2008), p. 169.



(左)도 4 <白釉瓜腹執壺>, 唐 후기, 높이 15.5cm, 江蘇省 臨安 水邱氏墓 出土(901), 臨安市文物館 소장 (穆青, 『定瓷藝術』, 도 75)



(右)도 5 <白釉刻'新官'款花口盤>, 唐 후기, 높이 3.2, 구경 15cm, 江蘇省 臨安 水邱氏墓 出土(901), 臨安市文物館 소장 (故宮博物院編, 『定瓷雅集』, 도 9)

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짐작된다(도 4, 5).<sup>24</sup> 이렇게 기물의 일부분에만 장식하는 것은 당대 금은기 제작 방법 중 '부분도금 기법'을 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금은 기물의 표면 전체를 금으로 입히지만, 부분도금법에서는 문양이 그려진 부분에만 금을 입힌다.<sup>25</sup> 이와 같이 기물의 바탕색과 대비효과를 주면서 문양이나 문양의 바탕을 강조하는 방식이 금구자기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도 6).

한편,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제작된 금구자기도 금은기와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른 사용규제가 따랐다. 이미 한대부터 사용자에 따른 규제가 있었는데<sup>26</sup> 이 시기 금구자기의 출토지가 대부분



도 6 <敬晦'菱花形銀盤'>, 唐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 도 15)

<sup>24</sup> 江松, 「關於水邱氏墓金銀白瓷的一些看法」, 『中國古代白瓷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上海博物館, 2005), p. 228.

<sup>25</sup>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일지사, 2003), p. 377.

<sup>26</sup> 『漢官舊儀』“太官尚食, 用黃金鈿器”, “中官, 私官尚食, 用白銀鈿器”太官은 黃金鈿器를 주관하고, 中官, 私官은 白銀鈿器를 주관한다는 뜻으로 太官, 中官, 私官은 각각 황제, 황후, 태자의 식기를 관할하는 곳이다. 또 『唐六典』에서는 황제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는 小府의 속관으로 太官에 대해서 大官이라고도 하는데 戰國 秦부터 있었으며 주로 궁정의 음식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고 하였다. 김택민 주편, 『譯註唐六典』中(신서원, 2005), p. 487. 각주 12 참고.

교장 및 귀족 묘장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금속 사용의 제한 및 고가의 기물이라는 특성에 따른 상류층 위주의 사용이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헌기록에서도 규제와 관련된 기록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西陽雜俎』에서는 당 후기 높은 신분으로 추정되는 貴人의 용구로서 銀椀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통해<sup>27</sup> 사용층이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南宋 李燾의 『續資治通鑑長編』과 〈宋慶元儀制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품 이상 관직 및 종실 친족 아니면 金銀器具를 사용할 수 없고, 銀銀을 사용하는 자는 도금을 할 수 없다. 궁정에서는 玳瑁酒食器의 사용을 금하지 않는데, 만약 純金器를 하사받은 자가 있으면 허하라.<sup>28</sup>

4품이상과 외척의 관료만 金椀이 가능하다.<sup>29</sup>

이는 특별히 하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층에 따라 사용에 엄격한 규제를 두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금구자기 역시 금은기에 준하는 격식에 맞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은기를 대체하여 금구자기가 제작되는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鉛器’와 ‘銀器’가 동의어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30</sup> 중국 금구자기의 성분 분석 사례를 보면,<sup>31</sup> 구연부 금속의 성분 조성은 납(鉛)과 주석(錫)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夷堅志』에 기재된 ‘錫工’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sup>32</sup> 8세기 후반에는 금은재료의 가공을 쉽게 하고 절약을 위해 銅 등의 혼합물을 섞게 되는

<sup>27</sup> 『西陽雜俎』前集 卷15, 「諾臯記」下, 元和年間(806-820), “令從婢以銀椀就井承水”

<sup>28</sup>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119, 景佑 3年(1036) 8月 己酉詔, “非三品以上官及宗室戚里之家毋得用金銀器具, 用銀釘者毋得塗金, 非宮禁毋得用玳瑁酒食器若純金器嘗受上賜者聽”

<sup>29</sup> 〈宋慶元儀制令〉, “非四品以上及宗室近戚, 器不得用金椀,” 謝明良, 앞의 책, p. 167에서 재인용.

<sup>30</sup> 앞의 책, p. 169.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112, 明道二年 (1033), “癸酉詔曰, 大行皇太后保佑冲人十有二年恩勤至矣而言者罔識大體務詆訐一時之事非所以慰朕孝思也其垂簾日詔命中外毋輒以言始…此豈人臣可得命有司別製入香京挺以賜之賜族人御食, 必易以鉛器, 日尚方器勿使入吾家也.”

<sup>31</sup> 관련 자료로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 도자인 〈청백자인각화훼문은구잔〉과 〈백자은구대접〉의 분석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청백자인각화훼문은구잔〉은 주석(Sn)을 주원료로 사용하였고, 〈백자은구대접〉의 경우 주석에 얇게 납 피막을 입혔는데 주석과 납의 異種 성분으로 인하여 갈바닉 부식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도자기 구연부 금속테두리에는 주석과 납이 골고루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양필승, 『陶磁器 修理復元 事例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4), pp. 42-45.

<sup>32</sup> 謝明良, 앞의 책, p. 168.

데, 이러한 경향은 송대에도 이어져 대용품으로서 주석·납·아연을 합금하는 일이 많아졌다.<sup>33</sup> 따라서 ‘鉛器’는 금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北宋代 기록인 『新唐書』<sup>34</sup>와 宋代 洪适의 『隸續』,<sup>35</sup> 北宋 『冊府元龜』<sup>36</sup>에 각각 ‘金銀鉛器’, ‘淳金鉛器’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일한 성격의 것을 문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으나 성분과 문헌자료에 근거하였을 때, 금속원료의 부족과 금은기의 규제에 따른 상황에서 금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속 위계에서 金, 銀 다음에 해당하는 금속을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금구자기의 유행과 확산

10세기 중국 남방의 오월국에서는 오월왕 錢氏가 월요청자를 後唐, 後周, 遼, 宋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공물로 주었는데, 특히 북송에 수차례 보냈다. 남·북방 요업의 상호 영향으로 정요와 요주요 등에는 월요양식이 흡수되었다. 금구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자기들의 문양 및 초형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sup>37</sup>

五代 越窯에서는 공납용 청자가 체계적으로 생산되었으며, 공물 중 자기가 주요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전씨는 이미 소성기술이 좋은 上林湖 일대의 요장을 이용하여 공납용 자기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황실에 공납했다. 이렇게 공납되는 자기의 수량은 14만개에 달하였고, 공납용 자기 중 상당수는 기물의 가장자리를 金銀으로 장식한 것이다. 특히 북송 乾德 4년(966)에서 太平興國 8년(983)에 이르기까지의 20년간 송에 보낸 공물은 적게는 150사에서 많게는 2,000사에 이른다.

<sup>33</sup> 임지윤, 앞의 논문, p. 51.

<sup>34</sup> 宋祁·歐陽修, 『新唐書』 卷43, 上, “貴州懷澤郡下本南定州鬱林郡武德四年日南尹州貞觀八年日貴州天寶元年更郡名土貢金銀鉛器紵布戶三千二十六口九千三百縣四 有府一曰龍山.”

<sup>35</sup> 洪适, 『隸續』 “...其間稱漢帝者再蓋東京惟威宗尊祠老子帝紀載延熹八年而遣中常侍至苦祠老子祭祀志延熹九年帝親祠老子於濯龍文廟為壇飾淳金鉛器設華蓋之坐用郊天樂故魏詔再三言之蓋是詔豫部修祠之事當時刻之於廟也...”

<sup>36</sup> 王欽若·楊億, 『冊府元龜』 卷53, “十一月使中常侍管霸之苦縣祠老子九年七月祠黃老於濯龍宮文廟為壇飾淳金鉛器設華蓋之坐用郊天樂...”

<sup>37</sup> 이 시기 중국 남·북방의 다양한 양식 흡수와 기술의 발전, 고려로의 유입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진아, 「高麗靑瓷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5); 정신옥,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영향」,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21(2007), pp. 41-85.

〈표 1〉 吳越國에서 중원으로 전해진 금구자기 관련 貢物 기록<sup>38</sup>

| 시기                 | 내용                                 | 문헌                      |
|--------------------|------------------------------------|-------------------------|
| 淸泰2年(935) 九月       | 王貢唐..金稜秘色瓷器 百事                     | 『十國春秋』卷79, 吳越三          |
| 乾德4年(966)          | 唯治又獻..鈿金瓷器萬事                       | 『宋史』卷480, 吳越錢氏          |
| 三年三月 <sup>39</sup> | 來朝..倣貢..金鈿瓷器百五〇事..                 | 『宋史』卷480, 列傳, 世家, 吳越錢氏  |
| 乾德4年(966)          | 性治秋獻..金鈿瓷器萬事                       | 『十國春秋』卷83, 吳越七          |
| 開寶6年(973) 月 十日     | 金銀稜寶裝床子十, 銀裝椅子十, 金稜秘色瓷器百五十事..      | 『宋會要輯稿』蠻夷七              |
| 開寶8年(975)          | 性治私獻..鈿金銀器萬事                       | 『十國春秋』卷83, 吳越七          |
| 開寶9年(976) 六月四日     | 明州節度使性治進..瓷器萬一千事, 內千事銀稜            | 『宋會要輯稿』蠻夷七              |
| 太平興國元年(976) 十月     | 太宗卽位..倣貢..金銀鈿器五百事                  |                         |
| 太平興國2年(977) 三月三日   | 倣進.. 銀塗金越器 百事..                    | 『宋會要輯稿』蠻夷七              |
| 太平興國2年(977) 五月八日   | 倣進.. 金銀稜器..                        | 『宋會要輯稿』蠻夷七              |
| 太平興國3年(978) 四月 日   | 倣進..瓷器五萬事..金鈿瓷器..百五十事..            | 『宋會要輯稿』蠻夷七              |
| 太平興國5年(980)        | 金鈿瓷器百五十事                           | 『宋會要輯』                  |
| 太平興國5年(980) 九月     | 王進朝崇德殿, 上金裝定器 千事                   | 『十國春秋』卷82, 吳越六          |
| 太平興國5年(980) 九月十一日  | 王(錢俶)進朝, 謝於崇德殿, 復上金裝定器 千事          | 『吳越備史』                  |
| 太平興國8年(983) 八月     | 王遺世子性溶貢宋帝..金銀陶器五百事,                | 『十國春秋』卷82, 吳越六          |
|                    | 金鍍銀稜瓷器四百事<br>銀漆稜器千六百               | 『錦里耆舊傳』(宋, 句延慶)         |
|                    | 金稜含寶椀之光祕, 色抱青瓷之響<br>金稜秘色瓷器兩百事      | 『冊府元龜』卷169              |
| 謝信物書               | 琥珀, 玳瑁, 金稜椀, 越瓷器..<br>金稜 寶椀之光祕色抱青瓷 | 『成都文類』<br>(宋, 扈仲榮, 程遇孫) |

唐·五代에서 북송 초기까지 금구자기는 주로 공납용 자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는 금은 기의 영향으로 기벽이 얇은 가운데 기물의 구연부와 저부를 포함한 가장자리를 금속테로 둘러 장식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陝西 夫風 法門寺 地宮 출토 유물 중 銀稜이 있는 2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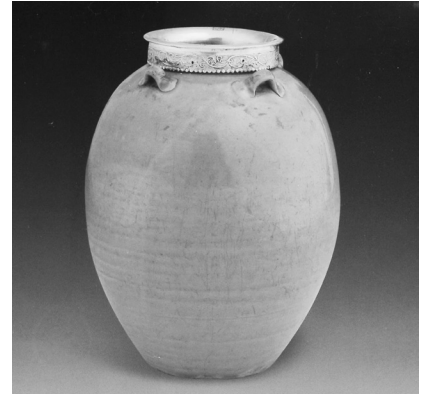
<sup>38</sup> 江松, 「關於水邱氏墓金銀鈿白瓷的一些看法」, 『中国古代白瓷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上海博物館, 2005), pp. 224-229;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定窯·優雅なる白の世界 - 窯址発掘成果展』(株式会社アサヒワールド, 2013), pp. 226-230 참조.

<sup>39</sup> 이 기록에서의 구체적인 연호는 알 수 없는데, 인용되는 문헌 중 『宋史』卷480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금구자기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져 관련 기록으로 포함시켰다.

비색완과 五代 蘇州 七子山墓 출토의 越窯靑瓷碗이 있다. 이외에 金釧四系罐의 구연부는 黃金으로 들렸고, 그 중심부에는 불상이 장식되어 있다. 당 중기 ‘貢瓷’의 최고급품인데<sup>40</sup> 의도적으로 장식효과를 주어 화려함을 더하였다(도 7).

더불어 금구자기의 제작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원래 송대 금은수공업은 태평 흥국 3년(978)에 설치된 文思院 관할이었다. 특히 문사원의 打作, 稜作, 鍍金作, 拍金作, 鉗金作, 銷金作, 鏤金作, 銀泥作 등 金銀器 가공 작업장 중 「稜作」이라는 공방에서 금구자기의 제작도 관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초기 금구자기의 제작은 금은기 ‘裨打’ 기법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제작 방법은 의도하는 형태 및 문양에 따라 틀을 제작해 판금 모양의 금과 은을 밀착시켜 두드려 나오게 하는 가공을 반복한 뒤, 裨의 요철을 그대로 금은기로 찍는다. 당 후기 정요에서는 이미 이러한 형을 이용하여 만든 기물의 수량이 많아지는데, 稜線의 윤곽을 가지는 盤, 碗 등이 대부분이다.<sup>42</sup>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된 금구자기는 금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장식된 부분에 약간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浙江 臨安 水邱氏墓(901) 출토 자기들 중 17점의 백자는 대부분 금구기법으로 장식하였는데,<sup>43</sup> 이들 중 몇 점은 저부에 ‘官’ 혹은, ‘新官’ 銘이 새겨져 있다. 또 북송과 요대 도자 중에서도 ‘官’ 銘 자기가 확인된다. ‘官’, ‘新官’ 銘 자기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명문을 통해 전문 제작공방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도 8, 9).<sup>44</sup>



도 7-1 <金釧四系罐>, 唐 중기, 높이 19.6, 구경 8.2cm (孫海芳 編著, 『紹興越國文化博物館』 中國越窯靑瓷, 도 58)

도 7-2 <金釧四系罐>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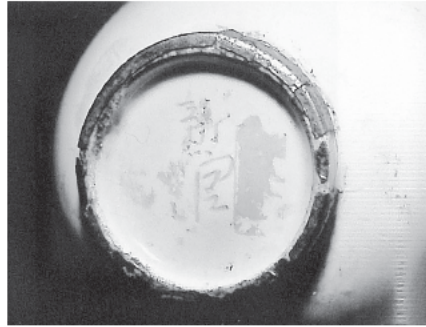
<sup>40</sup> 孫海芳 編著, 『紹興越國文化博物館』 中國越窯靑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p. 211.

<sup>41</sup>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彭州市博物館, 『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 (科學出版社, 2003), pp. 263-265.

<sup>42</sup> 王莉英, 穆青 [共] 著, 富田哲雄 訳, 『定窯瓷: 鑑賞と鑑定』 (東京: 二玄社, 2009), pp. 52-53.

<sup>43</sup> 藍春秀, 『關於水邱氏墓金銀釧白瓷的一些看法』, 『故宮文物月刊』 191(1999), pp. 100-107.

<sup>44</sup> 명문이 새겨진 자기는 당 후기에서 북송 후기 사이에 나타났는데, 특히 ‘官’, ‘新官’ 銘은 북송 초기부터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尙食局’, ‘尙藥局’, ‘樞府’ 등과 같이 몇몇 특정 관부 조직의 명칭도 자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원대



도 8-1 <白釉帶盞托把杯>, 唐 후기, 높이 8cm, 江蘇省 臨安 水邱氏墓 出土(901) (Li Zhiyan, Virginia L. Bower, He Li, *Chinese ceramics*, 도 5.51a)

도 8-2 <白釉帶盞托把杯> 저부 (*Chinese ceramics*, 도 5.51b)



도 9-1 <白釉'官'字款金鈎碟>, 北宋, 높이 3, 구경 10.7cm 河北 定縣 靜志寺 塔 出土(977), 定州博物館 소장 (中國出土瓷器全集 編委會, 張柏 主編 『中國出土陶瓷全集』 3, 도 90)

도 9-2 <白釉'官'字款金鈎碟> 저부

북송 중·후기에는 도자기 번조에 覆燒法의 도입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는 정요와 경덕진요 생산품이 주를 이루는데, 이 두 요장은 송대의 백자 생산을 주도하였던 대표적인 생산지였다. 먼저 정요에서 복소법은 宋 哲宗(재위, 1085-1100)에서 徽宗(재위, 1100-1125)시기에 나타난 기법으로, 복소법으로 번조를 할 경우 기존의 仰燒로 했을 때보다 앞서서 구웠기 때문에 번조 시 기물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마 안에 많은 양의 기물을 적재할 수 있

에서 명 초기에는 銘記가 '內府', '官用御器' 등이 있는데, 원대 '內府文物銘이 紅漆盤에 기록되었다. 이들은 모두 '官物', '官用'기물을 뜻한다. 王光堯, 『中國古代官窯制度』(紫禁城出版社, 2004), p. 64.

어, 공간 활용도가 높아 생산 효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 10).<sup>45</sup>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은 江西 鄱陽 政和元年(1111) 施氏墓 출토 정요백자완과 받이 있다.<sup>46</sup> 그리고 경덕진요 대표 생산품인 청백자는 기벽이 얇고 반투광성이며 투명 백색이 특징인데, 정요 복소법의 영향으로 대접, 완, 접시 등에 금속장식이 있는 자기들을 대량으로 제작하였다.<sup>47</sup> 금속장식이 있는 청백자 중 가장 이른 것은 북송 熙寧 4년(1071) 章民墓 출토 자기이다.<sup>48</sup> 복소법으로 제작된 자기들은 구연부가 시유되지 않은 결합을 금구기법으로 보완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금구자기의 보급을 촉진시켰다.<sup>49</sup> 또한 금구자기의 출토 상황을 보면 당대에서 오대까지 출토 예가 적지만 몇몇의 고급 귀족 묘장과 사찰의 地宮에 국한된다. 북송~남송대 청백자도 귀족묘 및 교장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초기의 금구자기는 금은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장식하였다면, 점차 구연부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개되었다. 복소법의 도입 이후에는 구연부가 시유되지 않은 망구자기가 비교적 많이 확인되는데, 망구로 인해 발생한 결합에 대해 기물의 사용을 선호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sup>50</sup> 이에 결합을 보완하고자 금속장식을 선택적으로



도 10 <支圈組合과 백자완, 定窯 遺址 出土 (穆青, 『定窯藝術』, 도 147)>

45 이희관, 앞의 논문, p.361.

46 余家棟, 『江西波陽宋墓』, 『考古』(1977. 4), p. 286.

47 국립중앙박물관, 『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마: 경덕진요 청백자』(국립중앙박물관, 2008), pp. 18-19.

48 鎮江市博物館, 『鎮江市南郊北宋章民墓』, 『文物』(1977. 3), pp. 55-58.

49 이 시기 특징 중의 하나는 구연부에 금속장식이 있는 칠기의 존재이다. 중국에서는 ‘一色漆器’라고 하여 칠하고자 하는 기물의 전체를 한 가지 색으로 도장한 칠기를 일컫는다. 이러한 칠기는 구연부에 정요와 같이 금속을 장식하거나 색을 칠하는 형태도 있으며, 주로 宋代에서 유행하였다. 이종현, 『中國漆藝簡史』, 『東亞洲漆藝: 中, 韓, 日 漆器』(북촌미술관, 2008), p. 124.

50 『老學菴筆記』, “故都時, 定器不入禁中, 惟用汝器, 以定器有芒也(…定器를 들이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汝器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定器는 芒이 있어서 이다).” 망구는 정요, 경덕진요에서 복소법 도입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망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데 대부분의 의견은 『坦齋筆衡』의 “定州白瓷有芒”의 “芒”자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정요의 ‘芒口’를 지칭한다고 여겨진다. 망구는 자기 번조과정 중에 구연부가 시유되지 않은 결합을 금속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伍秋鵬에 의하면 자기는 잘 부서져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구연부에 金銀으로 덮어 자기의 견고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자기 사용과정 중에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구연부에 금은 테두리는 보수의 한 방법이며, 銀 혹은 銅을 둘러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

수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도자기에 금속을 부가적으로 장식함으로써 실용의 견고함과 더불어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 Ⅲ. 금구자기의 고려 유입과 제작경향

고려 이전에는 금구기법으로 장식한 유물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신라에서 금속 기물의 가장자리를 銀으로 장식한 유물 1점이 확인 된다(도 11). 이 외에는 기물에 직접적으로 장식한 예는 아니지만 『해동역사』에서 하사품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sup>51</sup>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복식 중에 장식의 용도로 금구가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2</sup> 간략하게 기록되어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예에서도 금구기법의 활용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는 당과의 교류로 새로운 문물이 전래되어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당에서 제작된 공예품 중 어떠한 품목이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대에는 금구자기가 이미 제작되고 있어 국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치원의 문집에서 금구를 가리키는 듯한 내용이 언급된 바 있다.<sup>53</sup>

신라에서부터 황금의 사용이 활발하여 법으로 금지할 정도라고 하니 당시 금은기물의 제작



도 11 〈金銅製柄杓形容器〉, 신라 5세기, 높이 11cm, 경주금관총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도 11)

견이 있다. 伍秋鵬, 「試論瓷器口沿鑲金銀問題」, 『東方博物』(浙江大學出版社有限責任公司, 2006. 4), p. 38.

<sup>51</sup> 韓致滄, 『海東釋史』卷67. 人物考 1, “泉男生은 字가 元德이며, 고구려 천개소문의 아들이다. …남건이 남생의 아들 獻忠을 살해하자, 남생이 國內城으로 달아나 있으면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거란, 말갈의 군사와 內附하였다. …황제가 또 西臺舍人 李虔繹에게 명하여 軍前에 나아가서 위로하게 하면서 袍, 帶, 金釧 등 일곱 가지 물품을 하사하였다.”

<sup>52</sup> 『三國史記』卷33. 雜志. 第2. 色服. “『新唐書』에는 “高句麗王은 5色 무늬의 옷을 입고 흰 羅紗로 관을 만들며, 가죽 띠에는 모두 金釧를 하였다. 大臣은 靑羅冠, 다음은 絳羅(冠)를 쓰는데, 두 개의 새깃을 꿸고 金銀雜釧로 장식하였다. 적삼은 통이 넓고 바지는 아구리가 크며, 흰 가죽띠에 누른 가죽신을 신었다.”

<sup>53</sup> 崔致遠, 『孤雲先生文集』卷3, 大嵩福寺碑銘. “易荒階以釧砌, 釧音口. 金飾也. 言砌石之隙, 以鉛錫而鑄飾. 卑廡以瑀廊. 瑀. 雕飾也.”

및 사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전해지는 금은기물에 비해 금구기법으로 장식된 유물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당 문화의 영향 및 국내에서 금구가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추정해 보았을 때 이후에 금구기법이 적용된 기물 제작의 발전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물 사용의 금제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다. 신라 일성왕 때 금은주옥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제령을 내린 기사<sup>54</sup>를 보면 신라사회에서 금은사용의 예를 보여준다. 금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신분질서의 유지목적 외에도 왕실에서 사용되는 금의 사용이 증가한 상황과 관계가 있다. 고구려, 중국 북방 등과의 교역품과 장신구, 기물의 사용 외에 금동불 제작으로 인한 금의 수급 부족이 있었고,<sup>55</sup> 금속 사용의 제한은 계속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도 金·銀 등과 같은 고급 재료에 대한 위계 및 질서와 재료 수급의 한계가 존재했지만 제작은 활발하게 이뤄졌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기록에는 고려시대 중·후반기에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사치 습속에 대한 규제가 있을 정도였다.<sup>56</sup> 이러한 사실은 상류층 사이에서 화려한 기물 사용의 욕구와 제작 인식 등 당시 사회상을 보여준다.<sup>57</sup>

한편, 서공이 북송의 사신으로 입국했을 당시 고려의 상황을 기록한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는 금속 사용의 위계 및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금속기명의 경우 사용자의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놓여, 金 > 鍍金한 銀 > 銀 > 鍍銀한 銀 > 鍍銀한 銅 > 銅처럼 재질에 대한 고유의 가치 인식과 상징적 경중에 따라 순차적인 위계를 있었음이 파악된다.<sup>58</sup>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54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逸聖 泥師今. “11년 2월에 승을 내리기를 … 민간에서 金銀珠玉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十一年, 春二月, 下令, … 禁民間用金銀珠玉.)”

55 이송란, 『신라 금속공예 연구』(일지사, 2004), pp. 41-55.

56 『高麗史』卷85, 刑法2. 禁奢. “의종 22년(1168) 3월에 敎하기를 “옛날에 周王은 거칠고 꾸밈이 없는 옷을 입고도 큰 공을 이루었고 漢帝는 그릇에 조각장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朕이 간절히 흠모한다. 요즈음에 보니, 전국적으로公私 간에 모두 사치가 풍조를 이루어 의복은 반드시 비단을 쓰고 그릇은 반드시 金·玉을 써서, 寡人이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는 뜻에 대단히 어긋나고 있다. 이제부터 전국의 담당관사가 엄격하게 禁斷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二十二年 三月 敎曰 昔周王卑服卽康功漢帝器不雕鏤朕切慕焉 近見內外公私奢侈成風衣服必用錦繡器皿必用金玉甚乖寡人節儉之意 自今內外所司痛行禁斷.)”. 『高麗史』卷85, 刑法2. 禁奢. “충숙왕 후8년(1339) 8년 5월에 감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금령을 발표하였다. …각 기관에서 신구 관원의 교체 의식이 날이 갈수록 사치하여지고 지어는 기관 밖에서까지 음식을 차려 놓고 잡인들을 불러다가 노래와 춤으로 분잡스럽게 떠들고 있다. 이제부터는 일체 금지할 것이며 거기서 사용하는 금은으로 만든 술잔이나 병풍, 족자, 방석 등속도 다 금지하되 위반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後八年 五月 監察司勝示禁令…各司新舊之禮侈靡日增以至司外供設招引雜客歌舞喧譁今後一禁凡所用金銀酒器屏簇褥席等物亦令禁之犯者痛治…)”

57 관련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임지운, 『고려시대 魚子文 금속공예품 연구』, 『미술사학연구』 271·272(2012), pp. 15-17; 김세린, 『高麗時代 禁制와 工匠制를 통해 본 金屬象嵌技法의 양상』, 『미술사논단』 36(2013), pp. 171-176.

58 장남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器皿類) 연구』, 『역사와 담론』 70(2014), pp. 195-196.

분석해보면, 기명의 재질에 따른 위계관계는 대체로 금은기가 청자보다 위에 있었으며, 동기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기명의 수가 적은 원인에는 사용빈도가 적었을 가능성과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였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59</sup> 고려 사회에서 금속재료의 부족 문제와 더불어 금속기명이 자기보다는 희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물 사용의 위계에 있어서도 금속이 청자보다 위에 놓여 좀 더 장식적인 요소인 금속이 청자의 구연부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 1.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금구자기의 유입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로 유입된 자기는 실제로도 고려 초기부터 유물 및 문헌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고려와 北宋·遼의 활발한 문물교류는 금구자기에 대한 인식과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교류는 국가 간 使行에 따른 공식 교류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宋商의 활동, 北宋·遼人の 귀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진행되었다.<sup>60</sup>

거란계 귀화인의 경우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고려에 정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란계 귀화인 가운데 匠人이 많아 이들이 관청에 소속되어 器服을 제작한다는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sup>61</sup> 고려 전기에는 주로 현종~숙종 12년(1084-1117)의 기간에 집중되어 거란인이 귀화한 사실이 확인된다.<sup>62</sup> 고려 후기에는 고종 3년(1216)부터 상당한 수의 거란계 귀화인의 고려 입국이 확인된다.<sup>63</sup> 종합하면 고려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거란계 귀화인들이 고려로 들어왔고, 앞서 기록

<sup>59</sup> 尹喜鳳, 「高麗靑磁에 보이는 金屬器皿의 影響」, 『미술사연구』 23(2009), p. 227.

<sup>60</sup> 임진아, 앞의 논문, pp. 14-16.

<sup>61</sup>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9, 民庶, 工技, “고려는 장인의 기술이 지극히 정교하여,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는 다 官衙에 귀속되는데, 이를테면 幞頭所·將作監이 그곳이다. … 또 듣자니, 契丹의 항복한 포로 수만 명 중에 工匠을 - 기술이 정교한 자로 10명 중 한 명을 고른다. - 王府에 머무르게 하여, 요즈음 器皿과 복장이 더욱 공교하게 되었으나, 다만 부화하고 거짓된 것이 많아 전날의 순박하고 質朴한 것을 회복할 수 없다(高麗, 工技至巧, 其絕藝, 悉歸于公, 如幞頭所, 將作監, 乃其所也, 常服白紵袍阜巾, 唯執役趨事, 則官給紫袍,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 擇其精巧者, 留於王府, 比年器服益工, 第淨僞頗多, 不復前日純質耳.)” 이 외에 관련 선행 연구로는 김은애, 「고려시대 타출 공예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2007), pp. 31-72 가 있는데 타출공예품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sup>62</sup> 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 p. 57.

<sup>63</sup> 13세기에 들어와 蒙古의 공격으로 金이 기울게 되자 만주 隆安에서 반기를 들고 세력을 규합하던 契丹遺種은 澄州로 옮겨 大遼收國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蒙古와 東眞에게 쫓겨 高宗 3년(1216) 8월부터 고려로 침입해 들어오는 데 乞奴, 金山, 金始, 鴉兒, 統古典 등이 거느린 이들의 무리는 가족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고려에서는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포로를 얻었는데 고려 후기의 契丹系 歸化人으로는 이때 포로로 한 자들이 전부이다. 高

에서 언급한 거란인들 중 상당수준의 제작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있어 고려의 공예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직접 교류를 통해 유입된 자기의 영향 외에 서적의 유입으로 인한 모본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64</sup> 『高麗史』에는 송 황제가 『太平御覽』을 고려로 보냈고,<sup>65</sup> 명종 22년(1192)에도 송의 상인에 의해 고려 조정에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있다.<sup>66</sup> 두 차례 유입된 『태평어람』에는 중국의 金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려에서 금구를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금구자기의 실물이 처음 등장한 사례는, 월요청자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완도군의 장도 유적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이 있다. 오대·북송 초기에는 금속장식을 위해 소성 전에 구연부의 유약을 깎아내기도 하였는데 이 청자의 구연부를 갈아낸 흔적을 보아 제작 시기가 오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sup>67</sup> 또한 경상북도 경주 天官寺址에서 출토된 월요청자완 중에는 구연부가 마모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양이나 유색으로 미루어 10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68</sup>

11세기 후반 고려와 북송의 외교 관계 회복 이후에는 다수의 고려 유적에서 중국 자기가 출토된다. 대부분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 경으로 요주요계, 정요계, 경덕진요계 등 다양한 생산지의 수입자기가 출토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sup>69</sup> 이는 11세기 후반 북송의 문물 유입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경 사이에 이뤄진 많은 수



도 12 〈醬釉碗〉, 北宋, 고려 고분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中國陶磁』, 도 47)

宗 3년(1216) 9월부터 高宗 6년(1219) 1월까지 고려에서 포로로 한 契丹遺種은 2천 6백여명에 달한다. 朴玉杰, 앞의 책, p. 148.

64 정신옥, 앞의 논문, pp. 53-56.

65 『高麗史』 卷11, 世家 11, 肅宗 6年(1101) 6月, “병신일에 왕가와 오연충이 송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 편에 송나라 임금이 『태평어람』 1천 권을 보내었다(丙申 王暇·吳延寵還自宋, 帝賜王太平御覽一千卷.)”

66 『高麗史』 卷20, 世家 20, 明宗 22年(1192) 8月, “송 상인이 와서 『태평어람』을 바치자 白金 60근을 내려준 다음 崔詵을 시켜 오류를 교정하게 했다(宋商來, 獻太平御覽, 賜白金六十斤, 仍命崔詵校讎訛謬.)”

67 이희관, 『莞島郡 將島遺蹟 출토 越窯青瓷의 제작시기 문제: 고려청자 출현시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접근』, 『해양문화재』 5(2012), pp. 192-200.

68 이희관, 『경주지역 출토 월요청자』, 『한국고대사탐구』 15(2013), p. 173.

69 임진아, 앞의 논문, pp. 69-71.

의 송상의 무역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 중에는 특히 북방의 정요계 백자와 남방의 경덕진요계 청백자가 국내에 상당량 유입되었다.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정요의 〈醬釉碗〉은 복소법으로 제작되었고 노태된 구연부를 금속으로 마무리했다.<sup>70</sup> 또한 〈장유완〉과 동일하게 복소법으로 제작된 금대 정요자기도 개성에서 출토되었다(도 12).

국내에서 발견된 북송대 경덕진요계 백지들은 잔탁, 병류, 주자 등 기종도 다양하고 비교적 우수한 품질의 유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구연이 노태된 중국백자의 기종은 碗, 盤, 접시 등이 대부분이다. 정요계 백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덕진계 청백자가 고려 유적 출토품이나 전세품으로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경덕진요계 백자 생산 시기는 북송, 남송, 원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정요계 백자보다 오랜 기간 수입이 이루어졌다. 고려 중기에 백자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때마침 수입이 가능했던 중국백자에서 소비욕구의 해결점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sup>71</sup>

따라서,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 금구자기는 北宋, 金代 정요계 백자와 북송~남송대에 제작된 경덕진계 청백자로 출토지가 1159년에 죽은 문공유 묘<sup>72</sup>와 같은 상류층의 무덤이나 대규모 사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비록 많은 수량은 아니더라도 복소법으로 제작된 중국자기가 고려로 유입되는 것을 통해 고려자기에 금구기법이 적용되었을 기반은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고려시대 금구자기의 제작과 특징

주로 11~12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금구자기는 고려에서 사용되면서 고려 자체 자기의 제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연대가 명확한 소비지인 파주 혜음원지 보고서에 따르면 출토된 청자에 장식된 금속의 주성분은 은백색의 금속 원소인 주석(錫, Sn)으로 밝혀졌다.<sup>73</sup> 인체에 무해하여 식기, 기물 등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점이 매우 낮아 주조 및 단조에 의해 쉽게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 도자기의 구연부에 주석 테두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4</sup>

<sup>70</sup> 국립중앙박물관, 『中國陶磁』(국립중앙박물관, 2007), p. 125.

<sup>71</sup> 이종민, 「高麗 中期 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2011), pp. 147-151.

<sup>72</sup>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國書刊行會, 1972), p. 25에 출토 유물 중 중국 금구자기 1점이 명시되어 있다.

<sup>73</sup>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파주 혜음원지 출토 금속부 유물분석」, 『파주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1 차~4차(본문)』(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2006), pp. 324-235; 박성우, 「파주 혜음원지 출토 칠기굽 접시 과학분석」,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조사보고서』(한백문화재연구원, 2010), pp. 308-318.

<sup>74</sup> 양필승, 앞의 논문, p. 39.

주석은 『삼국사기』에서 ‘백랍’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납(鑛)’은 ‘납’ 또는 ‘백랍’이라고 하는데 錫(Sn)을 말한다. 백랍은 사용상에 신분적 규제가 따르고 있어 가치가 높은 금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75</sup> 하지만 고려에서 제작된 금구자기는 생산지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고, 해음원지와 같은 왕실 관련 유적과 교장 등 소비지에서만 출토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현재까지의 출토 현황 및 당시 문헌 자료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제작방법은 알 수 없다. 다만 저온 소성을 통하여 금속재료를 구연부에 안착시켰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는데,<sup>76</sup> 앞서 언급한 ‘槌打’기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석의 연성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재단하고 구연부에 끼우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구자기 합이 가장자리가 맞물리는 부분에 들뜨는 현상이 발생한 것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도 13).



도 13 <청자상감국당초문은구합>,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자 촬영)

현재 파악되는 고려에서 제작된 금구자기의 수량은 유적 출토품을 포함하여 전세되는 유물까지 18점이 확인된다.

<표 2> 고려 금구자기의 현황 (총 18점)<sup>77</sup>

| 기종(수량)    | 유물명          | 시기         | 출토지/소장처           |
|-----------|--------------|------------|-------------------|
| 대접<br>(5) | 청자압출양각연당초문대접 | 고려 12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
|           | 청자양각화문대접     | 고려 12세기    | 파주 해음원지 출토        |
|           | 청자국화녕쿨문대접    | 고려 13세기 전반 | 희종 석릉 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

75 『三國史記』卷33, 雜誌 第2, 屋舍 “6두품의 방은, 長廣이 21자를 넘지 못하며, 唐瓦를 덮지 않고, 飛簷과 重袱(겹들보)·棋牙(기둥 위에 架設方木)와 懸魚를 設하지 않으며, 金銀·鎗·石·白鑛과 5色 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六頭品, 室長廣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重袱棋牙懸魚, 不飾以金銀鎗石白鑛五彩).”

76 양필승·서정호·황현성, 「경덕진요 백자 구연부 금속테두리의 제작기법 및 접착방법 재현」, 『보존과학회지』 25(2009), pp. 279-282.

77 국립중앙박물관, 『천하제일 비색청자』(국립중앙박물관, 2002);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 다시 찾은 비취색 꿈』(국립전주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왕실의 도자기』(국립중앙박물관, 200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파주해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1차-4차(본문)-』(단국대학교 출판부, 200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고려편Ⅲ(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8(東京: 名著出版, 1973); 林栢亭 主編, 『大觀 北宋汝窯特展』(國立故宮博物院, 2006); <https://www.dia.org/art/collection/object/tea-bowl-2583>

|           |             |               |                           |
|-----------|-------------|---------------|---------------------------|
| 대접<br>(5) | 청자상감국화절지문대접 | 고려 13세기 후반    |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 유적 출토      |
|           | 청자상감모란문대접   | 고려 13세기 후반    |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 유적 출토      |
| 완(1)      | 청자상감운학문완    | 11세기후반~12세기초반 | 대만 고궁박물관                  |
| 접시<br>(7) | 청자상감접시      | 고려 12세기       | 파주 혜음원지 출토                |
|           | 청자양각휘장문접시   | 고려 12세기       | 파주 혜음원지 출토                |
|           | 청자양각문접시     | 고려 12세기       | 파주 혜음원지 출토                |
|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 고려 12세기       | 파주 혜음원지 출토                |
|           | 청자상감화문육각접시  | 고려 12세기       | 한백문화재연구원                  |
|           | 청자상감화문육각접시  | 고려 12세기       | 파주 혜음원지 출토                |
|           | 청자원형접시      | 고려 12세기       | 한백문화재연구원                  |
| 합<br>(2)  | 청자상감국당초문은구합 | 고려 12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
|           | 청자상감국화문은구합  | 고려            | 조선고적도보                    |
| 잔<br>(3)  | 청자잔         | 고려            | 보스틴 박물관                   |
|           | 청자잔         | 고려            | Detroit Institute of Arts |
|           | 청자잔         | 고려            | 한남대 박물관                   |

〈표 2〉와 같이 실제 유적에서 금구자기의 출토 사례는 매우 적다. 고려의 금구자기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적지는 왕실 숙박기관이었던 파주 혜음원지이다. 출토된 청자는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었으며, 규석을 받쳐 갑발 안에서 구운 고급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중국 송대 정요 및 경덕진 산품으로 추정되는 중국자기도 함께 출토되어 동시기 고려로 수출된 중국자기의 소비 성향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1981년 발굴된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에서도 유물이 확인되는데 편년은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이다. 유물의 매납 방식은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 유적에서는 예가 없는 도기 항아리를 이용한 窰藏 형태로<sup>78</sup> 출토된 많은 수량의 자기들 중 금구자기가 포함되어 있다.

금구기법으로 장식한 청자대접 중 대표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압출양각연당초문대접〉이 있다. 내면에 압출양각으로 시문하고 외면은 모란문을 상감하였다. 특히 내외면의 문양을 서로 다른 기법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인데, 이것은 상감기법이 소극적으로 사용되던 시기에 순청자와 상감청자의 양식적 혼합을 보여주는 것이다(도 14).<sup>79</sup> 희종 석릉 출토품의 경우에는

<sup>78</sup> 김윤정,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 출토 유물의 성격과 편년」, 『도자문화』 2(2009), pp. 8-9.

<sup>79</sup> 국립중앙박물관, 『천하제일 비색청자』(국립중앙박물관, 2002), p. 152.



도 14 <청자 압출양각 연당초문 대접>, 고려 12세기, 높이 7.9, 구경 17.5cm, 국보 제253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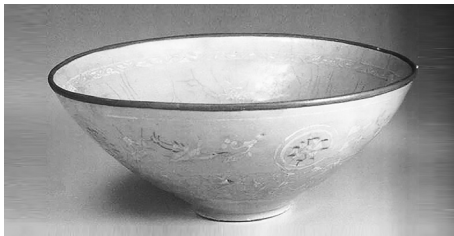


도 15 <청자국화빙쿨문대접>, 고려 13세기 전반, 회중 석릉 출토, 높이 5.8, 추정 입지름 17cm,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왕실의 도자기』, 도 30)

압출양각으로 시문하였고 비교적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대접의 안바닥에는 ‘○’文이 음각으로 새겨진 것이 특징적이다(도 15).<sup>80</sup>

현재 확인되는 완으로는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의 <청자상감운학문완>이 유일하다. 외면에 국화절지문이 상감되고 여백에 운학문을 백토로 시문하였으며 구연부는 銅으로 둘렀다(도 16).

접시는 모두 구연부에 금속을 장식하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육각접시와 같은 각접시는 명종 지릉 출토품 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원형접시는 원덕대후 곤릉 출토품 중에서 형태가 유사한 것이 있다. 고려 중기에 상당량 확인되는 접시와는<sup>81</sup> 달리 해음원지 출토품은 특수기종 및 특



도 16 <청자상감운학문완>, 고려 11세기 후반 - 12세기 초반,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대만고궁박물관, 『大觀 北宋汝窯特展』, 도 31)



도 17 <청자 접시>, 고려 12세기 전반 - 13세기 전반, 파주 해음원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왕실의 도자기』, 도 55)

<sup>80</sup> ‘○’와 ‘◎’ 같이 굽안바닥 중앙에 부호를 새기는 것은 제작자(공방)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청자가 생산된 곳은 강진 사당리 8호, 23호, 27호 가마터 즉, 사당리 117·126·128번지 일대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생산지가 매우 한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비 유적은 강화 석릉을 비롯하여 파주 해음원지, 경주 불국사, 남원 실상사, 대구소와 인접한 장흥의 유력층 유적 등에서 출토되어 상류층을 위해 생산 공급하였다. 한성옥, 『高麗 陰刻 ‘○’文과 ‘◎’文 靑瓷의 研究』, 『고문화』 70(2007), pp. 138-149.

<sup>81</sup> 고려 중기 청자요지인 강진 용운리 10호 II층 출토 유물 중 접시를 기준으로 보면 접시의 형식은 다양한데 그 중 T식

수한 문양으로 왕릉 출토품과 유사한 특징이 있어 왕실관련 소비처임을 짐작할 수 있다(도 17).

두 점의 합은 뚜껑 윗면에 국화문이, 구연부에는 뇌문을 상감하였다. 모두 합이 뚜껑과 몸체가 맞물리는 부분에 금속으로 문양의 절반 가량을 덮었는데 의도적인 장식 효과를 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잔은 통형, 팽이형, 능형으로 유형이 각기 다르며 상감기법으로 장식된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sup>82</sup> 보스턴 박물관 소장의 <청자잔>은 무문으로 가장 초기 형식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남대 소장의 <청자잔탁>은 음각기법으로 시문하였고, 앞서 언급한 중국의 법문사 출토 완과 유사하게 구연부가 곡선이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 금구자기의 경우와는 달리 구연부에 노태된 흔적이 있다. 구연부가 노태된 것은 소성 전 구연부를 굽어내어 금속의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짐작된다.

유물의 대부분은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 상감기법과 같은 고급기술로 제작된 청자 위에 장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2-13세기는 상감기법이 본격적으로 확립되고 발전한 시기로 중국 및 주변국과 구별되는 고려도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으로 인식되는데<sup>83</sup> 고급의 상감청자에 금구장식을 더해 가치를 더욱 향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요 등의 사례와 같이 복소법으로 인해 발생한 구연부가 노태된 망구 위에 금속으로 장식한 것과 달리, 유약 위에 금속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장식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려의 금구자기는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유약 위에 금속으로 장식한 것으로 보아 송대의 망구와 같이 결합을 덮기 위한 목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에서는 복소법으로 제작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연부 위에 금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이상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한편, 2010년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에서는 6점의 칠기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청자와 마찬가지로 칠기의 구연부와 저부를 금속으로 장식하였고 주성분 역시 주석으로 동일하다. 또한 출토된 칠기 중 2점의 바닥 부분에는 ‘惠蔭’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소비처를 명시하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 18).

이외에도 동체 외면 전체에 금구장식을 한 자기가 드물게 알려져 있다. 최근 전시를 통해 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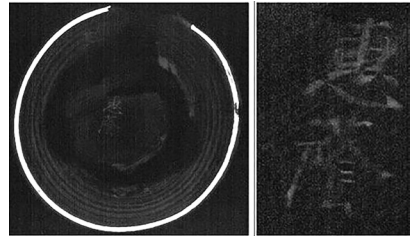
(내저면이 약간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과 측사면 경계에 한 줄의 음각대선이 있을 뿐, 굽에서 弧形을 이루며 뺄어올라 그대로 구연부를 이루는 형태) 접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혜안, 2006), p. 148.

<sup>82</sup> 그러나 고려 중기 청자에서 상감이 문양 비율 면에서 극히 적으며, 강진이나 부안 지역을 제외한다면 문양도 구연부를 장식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감이라는 고난도 기법이 기술적인 어려움과 아울러 상감기법을 사용한 청자의 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장남원, 앞의 책, p. 179.

<sup>83</sup> 위의 책, p. 173.



도 18-1 <칠기굽접시>, 고려 12세기 전반~13세기 전반, 파주 혜음원지 출토 (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조사보고서』, 도 314)



도 18-2 <칠기 굽접시 저부의 '惠蔭'銘>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조사보고서』, p. 299)

려진 개인 소장품의 <백자금구봉황문완>과 <청자금구금수문완>이다.<sup>84</sup> 바탕완은 각각 청자와 백자로 강진 용운리와 용인 서리 백자요지 등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완들은 외면 전체를 투조한 금속을 씌워 장식하였다. 기물의 가장자리에만 장식되던 것이 둘레 및 외측으로 점차 확대되어 장식한 것으로 금구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8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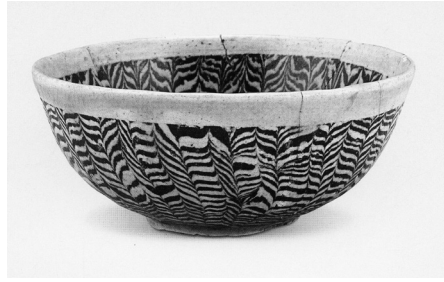
### 3. 金釘瓷器의 변안과 의의

지금까지 금구자기는 구연부를 비롯한 외면을 금속으로 장식하여 자기의 고급화를 보여주

<sup>84</sup> 이 두 점의 완은 갤러리 아트링크 “고려청자와 그 상속자들”展(2014.6.1-6.30)과 신세계 갤러리 “벽오동 심은 뜻은—우리 도자의 아름다움”展(2014.10.29-12.1)에서 전시된 바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 점의 완은 갤러리 아트링크 “고려청자와 그 상속자들” 전시 도록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sup>85</sup> 바탕완 위에 기물의 구연부와 저부를 포함하여 외면 전체에 투조한 금속을 씌운 것과 같은 유사한 장식기법을 사용한 예로는 현재 국보 92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동제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이 있다. 이 정병의 상부는 당초무늬를 투조한 은판으로 감싸 장식효과를 높여 주었고, 저부는 은으로 장식하였다. 바탕재질은 청동으로 앞서 언급한 두 점의 완과 재료는 다르지만 금구장식과 기법상 유사하다. 이와 같이 전체에 금속을 부착해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說文解字』에서 “錯, 金塗也”라는 내용을 통해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는 錯을 금속을 기물에 덮어 장식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를 넓은 범주에서 보면 금구장식 역시 구연부에 금속을 부착하여 장식한 것을 이르기 때문에 현재 범주 내에 속해 있는 鍍金, 入絲, 貼花 등의 장식과 함께 포함된다. 한편, 이 유물들의 제작 및 장식기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 <청자금구금수문완>의 분석데이터를 참고하면 전통적으로 행해온 기법인 아말감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도금층의 주성분이 금(Au), 수은(Hg)으로 검출되어 수은 아말감기법에 따른 도금으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은 갤러리 아트링크 “고려청자와 그 상속자들”展 전시도록 내 분석자료를 참고하였다. John Twilry, 『Analysis and Materials Science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Scientific Examination of a Koryo Celadon Bowl With Gilt-Silver Overlay』, 『고려청자와 그 상속자들』(갤러리 아트링크, 2013).

었다. 동시에 금속원료가 지나는 고급재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구자기의 제작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금구자기와 시각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번안을 통해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송·금대 자기 구연부에 금속장식을 한 것과 동일하게 재질 및 색을 다르게 하여 장식적 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은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려 및 동시기 중국에서 유행하였다.



도 19 〈絞胎盞〉, 金, 山西省汾陽市杏花村酒廠出土, 汾陽市博物館 소장 (『中國出土瓷器全集』5 山西, 도 148)

송·금대 자기 중에는 백자 위에 철화로 구연부를 시문하거나 혹은 흑유자기의 바탕위에 구연부만 백유로 시유하여 색의 차이를 통해 장식효과를 주고 있다. 특히, 교태 연리문 자기와 같이 혼합한 흙을 반죽하고 넓게 밀어 퍼서 기물 형태의 陶範에 씩워 형태를 잡고 기물의 구연부나 모서리 등을 도려낸 후 백토로 덧대어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도 19). 이러한 교태 연리문 자기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10세기 말부터 12세기에 이르는 시기 송, 요, 금과 고려가 공존하는 동안 고려는 다양한 경로로 중국 북방과 교류하고 있었으므로 교태자기의 실물이나 기술을 수용할 개연성은 열려 있었고,<sup>86</sup> 고려에서 경주 황룡사지와 파주 혜음원지에서 교태 연리문자기의 파이 발견된 예가 있다. 따라서, 구연부에 바탕과 다른 백토를 덧대면서 구연부를 정리하는 보완의 기능과 장식적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던 금구의 조형을 재현했고 흑유자기와 같이 구연에 백토를 시유하는 경우에도 색의 차이를 이용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도 20 〈청자철화화형접시〉, 고려 13세기, 높이 2.3, 구경 12cm, 호암 미술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麗靑磁名品特別展』, 도 276)

한편, 고려청자 중에서 호암미술관 소장의 〈청자철화화형접시〉는 구연부에 철채가 시문되었다.<sup>87</sup> 이 접시의 구연부는 시문된 굽기가 일정하지 않지만 재질 및 색의 차이를 이용하여 강조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려에서 뇌문과 같이 구연부가 음각 및 철화로 시문되는 예가 더러 확인되지만, 이와 같이 철화기법을 사용하여 테두리를 두껍게 시

<sup>86</sup> 장남원, 「고려시대 교태(絞胎)연리문(練理文)자기의 연원과 제작시기」, 『역사와 담론』 63(2012), pp.129-131.

<sup>87</sup>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磁名品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89).

문한 예가 금구자기와 가장 유사한 효과를 낸다 할 수 있다(도 20).

이러한 양상은 금속재료의 사용 제한과 맞물리면서 고가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금구자기와 같은 장식 및 시문기법을 활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고급 자기의 표면 위에 금속장식을 더한 금구자기는 도자에서 고급화 및 장식성의 강화를 보여주며,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구장식을 통해 형성된 사회 문화적 인식은 도자기이지만 도자기 이상의 가치와 인식의 확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준다.

## IV. 맺음말

10-13세기에 걸쳐 중국과 고려에서 나타난 금구자기는 기물의 가장자리 및 외면을 금속으로 장식하여 고급기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금구자기는 주로 상류층에서 애호하였고, 더 나아가 다른 재질로 번안되기까지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중국과 고려의 금구자기가 갖는 성격 및 의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금구기법의 시작은 漢代 鈿器에서 확인되며 고가의 기물로 제례용 및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용기로 사용되었고 특정 신분층에서의 사용과 규제가 따랐다. 이렇듯 구기의 성격은 자기에 그대로 이행되는 것에 더하여 금구가 가진 특징과 재료의 성격으로 인해 사용층이 상류층에 한정적이고 고급기물로서의 용도 역시 제한적이었지만 꾸준히 애호되었다. 더 나아가 금속재료의 수급 부족과 정강의 변화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모방을 통해서 금구자기를 향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인다.

둘째, 금구자기는 중국과 고려에서 특정시기에만 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唐·宋 시기에 걸쳐 제작과 사용이 이루어졌고 고려에서는 짧은 시기에 드물게 제작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보면 중기에 한정되어 있다. 고려 중기는 제작 기술의 변화가 보이고 새롭게 상감청자가 제작되는 등 장식기법의 다양화가 보이는 시기로 결과적으로 고려 전체에서 가장 일정한 양식이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로 파악되는데, 이미 정착된 청자 제작 기술에 금속을 덧붙이는 새로운 장식기법을 도입하여 고급화를 추구하였다.

셋째, 금구자기는 자기의 결실 부분을 보완하는 실용적 기능과 금속재료를 덧댄 장식적인 효과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었기에 다양한 공예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미 한대 철기부터 구연부의 결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으로, 또 자기와 금속이 조화를 이뤄 장식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 및 장식적

요소는 북송 중기 복소법의 도입에 의한 대량생산에서 발생하는 구연부의 결합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

이후에도 자기 바탕의 가장자리와 외면을 금속으로 장식하는 것을 통해 서로 다른 재질의 결합으로 기물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이는 중국과 고려에서 금구자기의 제작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자기 외에 다른 재질에서도 금속과의 결합은 계속되는데 이러한 결합 양상 및 이에 따른 변안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금구(金鈎, Jinkou), 금구자기(金鈎瓷器, Jinkou Porcelain ), 구기(鈎器, Kouqi), 망구(芒口, Mangkou), 변안(adaptation), 고려청자(高麗靑瓷, Goryeo Celadon)

■ 투고일 2017년 5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7년 6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28일 ■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孤雲先生文集』

『老學菴筆記』

『東京夢華錄』,

『東文選』

『隸續』

『武林舊事』

『三國史記』

『西陽雜俎』

『宣和奉使高麗圖經』

『世宗實錄』

『續資治通鑑長編』

『演繁露』,

『鹽鐵論』

『睿宗實錄』

『冊府元龜』

『太平御覽』,

『漢官舊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 2. 한국어 문헌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磁名品特別展』, 국립중앙박물관, 1989.

,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중앙박물관, 1997.

, 『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 경덕진요 청백자』, 국립중앙박물관, 2008.

, 『낙랑』, 솔출판사, 2001.

, 『中國陶磁』, 국립중앙박물관, 2007.

, 『고려 왕실의 도자기』, 국립중앙박물관, 2007.

갤러리 아트링크, 『고려청자와 그 상속자들』, 갤러리 아트링크, 2014.

- 김세린, 「高麗時代 禁制와 工匠制를 통해 본 金屬象嵌技法의 양상」, 『미술사논단』 36, 2013.
- 김윤정,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 출토 유물의 성격과 편년」, 『도자문화』 2, 2009.
- 김은진, 「樂浪古墳 出土의 漆器 研究: 平壤 石巖里 205號墳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파주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1차~4차(본문)』, 단국대 학교 출판부, 2006.
- 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
- 범엽 저, 장은수 역, 『後漢書 本紀』, 새물결 출판사, 2014.
- 북촌미술관, 『東亞洲漆藝 中·韓·日 漆器』, 북촌미술관, 2008.
- 삼성미술관 Leeum, 『금은보화: 한국 전통공예의 미』, 삼성미술관 Leeum, 2013.
- Charlotte Horlyck,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소장 고려 화금청자받침 연구(A Gilded Celadon Stand From the Goryeoperiod in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문물』 3, 한국문물연구원, 2013.
-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美術의 代外交渉』, 예경, 2004.
- 양필승·서정호·황현성, 「경덕진요 백자 구연부 금속테두리의 제작기법 및 접착방법 재현」, 『보존과학회지』 25, 2009.
- 양필승, 「陶磁器 修理復元 事例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尹喜鳳, 「高麗靑磁에 보이는 金屬器皿의 影響」, 『미술사연구』 23, 2009.
- 李基東, 「9-12世紀 韓國과 東아시아 세계」, 『사학연구』 88, 2007.
- 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
- 이송란,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2004.
- , 「송대 금은기의 사용양상과 사회적 의미: 四川 彭州 窖藏 金銀器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1, 2016.
- 이종민, 「高麗 中期 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 2011.
- 이희관, 「莞島郡 將島遺蹟 출토 越窯靑瓷의 제작시기 문제: 고려청자 출현 시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접근」, 『해양문화재』 5, 2012.
- , 「越窯의 消滅에 관한 몇 가지 問題」,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
- , 「경주지역 출토 월요청자」, 『한국고대사탐구』 15, 2013.
- 임지윤, 「高麗時代 魚子文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임진아, 「高麗靑瓷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해안, 2006.
- ,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器皿類) 연구」, 『역사와 담론』 70, 2014.
- 정신옥, 「11세기 말 ~ 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영향」,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21, 2007.
-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 최응천·김연수, 『금속공예』, 솔, 2004.
- 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 3. 동양어 문헌

- 江松, 「關於水邱氏基金銀鈎白瓷的 些看法」, 『中國古代白瓷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上海博物館, 2005.
- 故宮博物院編, 『定窯雅集』, 故宮出版社, 2012.
- 高濱秀外編集, 『世界美術大全集』5, 小學館, 1998.
- 光堯, 『中國古代官窯制度』, 紫禁城出版社, 2004.
- 大板市立東洋陶磁美術館, 『定窯・優雅なる白の世界 - 窯址発掘成果展』, 株式会社アサヒワールド, 2013.
- 藍春秀, 「關於水邱氏基金銀鈎白瓷的 些看法」, 『故宮文物月刊』191, 1999.
- 馬東, 「戰國秦漢扣器的考古學初步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穆青編著, 『定窯藝術』, 河北教育出版社, 2002.
- 法門寺博物館·韓生, 『法門寺文物圖飾』, 文物出版社, 2009.
- 謝明良, 『陶窯手記』, 上海: 石頭出版, 2008.
-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彭州市博物館, 『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 科學出版社, 2003.
- 孫海芳編著, 『紹興越國文化博物館』中國越窯青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國書刊行會, 1972.
- 揚之水, 『奢華之色 宋元明金銀器研究』3, 中華書局, 2011.
- 余家棟, 「江西波陽宋墓」, 『考古』, 1977. 4.
- 伍秋鵬, 「試論瓷器口沿鑲金銀問題」, 『東方博物』, 浙江大學出版社有限責任公司, 2006. 4.
- 王莉英, 穆青 [共]著, 富田哲雄 訳, 『定窯瓷: 鑑賞と鑑定』, 東京: 二玄社, 2009.
-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 中國出土瓷器全集編委會, 張柏主編『中國出土陶瓷全集』3, 科學出版社, 2000.
- 中國漆器全集委員會編, 『中國漆器全集』3, 福建美術出版社, 1998.
- 鎮江市博物館, 「鎮江市南郊北宋章民墓」, 『文物』, 1977. 3.

### 4. 서양어 문헌

- Li Zhiyan, Virginia L. Bower, and He Li, *Chinese Ceram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of Press, 2010.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0-13세기 중국과 고려에서 유행했던 서로 다른 재질 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금구자기가 가지는 공예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金釳는 구연부와 저부를 포함한 기물의 가장자리나 동체 외면을 금속으로 보강 또는 장식한 것을 지칭하는 기법이다. 금구기법으로 제작한 기물은 중국 전국시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漢代에는 釳器라는 명칭이 문헌 기록에서 확인된다. 구기는 철기의 구연부 및 가장자리에 발생한 결실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 출토 철기의 명문을 통해 제작공방과 장인의 명칭이 새겨져 있어 제작에 대해 단편적으로 확인돼 중국의 기술과 기법이 국내에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다.

唐, 五代에는 한대 구기의 제작방식과 유사하게 도자기에 금구기법이 적용되었다. 금은기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강의 변화 같은 시대 정황과 금속원료의 부족 등의 사회상은 금구자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된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五代와 北宋 시기 주로 귀족묘의 묘장과 교장에서 출토된 것을 근거로 상류층 및 왕실의 하사품으로 소비되었음이 파악되며, 더불어 국가 간 조공품으로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북송 중·후기에는 복소법의 도입으로 구연부가 시유되지 않은 자기가 상당한데 이를 보완하는 목적으로도 금구기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송대에는 인적·문화적 교류로 고려로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특히 고려로 들어온 거란계 귀화인과의 직접적인 문물 교류는 고려인들로 하여금 금구자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 금구자기는 출토지가 대표적으로 파주 해음원지와 같은 왕실 관련 유적인 점으로 보아,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려 역시 주로 상류층에서 소비했음을 짐작케 한다. 나아가, 고급 시문기법인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구연부를 금속으로 장식했다는 점은 기물을 좀 더 고급화하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중국과 고려에서 금구자기의 제작에 사용된 금속은 한정된 재화로서 규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재질을 이용하여 번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로 고려를 비롯하여 遼, 金代의 유물에 서 구연부에 색 및 재질을 다르게 해 장식효과를 준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종합하면 첫째, 금구자기는 금구가 가진 특징과 재료의 성격으로 인해 사용층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용도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꾸준히 지속되어 규제에 따른 모방이 나타나 이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인된다. 둘째, 금구자기는 보완의 기능과 동시에 장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면을 충족시키는 공예품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재질간의 결합이 가진 금구자기의 장식성과 재질의 위계 관계를 통한 기물의 위상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이것이 번안되어 사용층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구자기가 고려와 동시기 중국에서 금속과 도자의 결합을 통해 공예의 실용적, 장식적 가치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Jinkou Porcelain in China  
and Goryeo from 10<sup>th</sup> to 13<sup>th</sup> Centuries**

**Yoon do y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orcelain with “jinkou” (金釘), which was popular in both Goryeo and China from the tenth to thirteenth centuries. Jinkou refers to the technique of covering edges or outer surfaces of an artifact with metal to reinforce or decorate it. An example of objects with jinkou first appeared in the Warring State Period, and the earliest textual record of it was found from the Han Dynasty. The method was presumably originated as a way of repairing damages on edges of lacquer wares in China. During the Han Dynasty, the technique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peninsula, as evidenced by a lacquer ware with an inscription of its artisan and workshop and excavated in Nakrang, one of the Four Counties of the Han in the northern regions of the peninsula.

During the Tang and the Five Dynasties, the technique was applied to ceramics just like in the Han Dynasty. In the periods after the Tang, the production of jinkou porcelain increased, probably because of the lack of raw materials to produce metal wares, while gold and silver wares remained popular throughout the periods. Since jinkou porcelain from the Five and the Northern Song Dynasties has been mainly found in tombs and cellars of aristocrats, it was probably utilized as an imperial gift or as a tribute between countries. In

---

\*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mid- and late-Northern Song Dynasty, the technique was applied to ceramics, which had been fired upside down so that the rims had not been glazed, to cover up the unglazed edges.

During the Song Dynasty, the technique was introduced into Goryeo amid the active human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people originally from Georan but naturalized as Goryeo people might have exerted a direct influence on other Goryeo people to learn about the technique.

In Goryeo, jinkou porcelain has been usually excavated in the sites related to royal families such as Hyeum-won in Paju. Thus, it was probably consumed by the upper class like in China. Furthermore, the jinkou porcelain found in Goryeo is often decorated with the inlay technique in addition to metal on the rim, showing that it was made as luxury goods.

As there were sumptuary regulations on the consumption of metal both in Goryeo and in China, other materials were used as metal substitutes. For instance, some of the ceramics excavated in Liao and Jin Dynasties as well as Goryeo were decorated with various materials of different colors on their rims.

In sum, the article mainly argues three points. First, the consumers and the functions of jinkou porcelain were limited,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for making it. However, it was imitated with other materials for those, who could not consume jinkou porcelain. Second, jinkou porcelain was made for reinforcing as well as decorating the object so that it accomplished both practical and artistic purposes. Third, jinkou porcelain illustrates the hierarchy among different materials for making porcelain by combining ceramics with a more valuable material of metal and serving as a model for objects made of cheaper materials. In the end, jinkou porcelain achieved the two main goals of crafts, that is, practicality and decoration.